

발견강

피부건조증 (Xerosis cutis)

▶ 1383호에서 이어집니다.

건조된 피부는 순한 비누의 사용, 목욕물에 오트밀을 띄우고, 그리고 목욕 후 즉시 보습제를 사용함으로써 호전을 볼 수 있고, 과도한 비누가 발생될 때는 젤산이나 알라르드복산이 첨가된 보습제나 도포를 줄 수 있습니다. 젤산은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행하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피부로부터 수분 손실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노화가 피부건조증의 주요 유발인 때를 안착하게 매우 합니다. 수분과 피지의 부족에서 병증이 야기되기 때문에 더 이상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증상 완화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수반되고 같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서 체균감염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참지 못해 잠시간 연고제를 사용하면 고타적인 습진성 피부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1. 목욕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자국이 심한 비누나 탈모용 샴푸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2.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거나 조금 따뜻한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목욕 후에는 보습 오일과 로션을 충분히 발라 영양과 보습에 유의를 하고 싶네 공기 습도를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를 계속 긁지 마라 긁어서 생기는 상처나 이차적인 염증이 생기기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피부 가려움 현상이나 이차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꼭 전문의를 찾아야 상담하고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건조증의 경우는 초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김영국 김성일 병8병원 전문의

김영국 병8병원 전문의
 김성일 병8병원 전문의
 TEL (714) 732-6266
 5451 La Palma Ave #208
 La Palma, CA 90622



치과

치주질환의 모든 것

◆ 치주질환이란?

성인 한국인의 60% 이상이 걸려있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치주질환(잇몸 질환)은 치아 자체가 아닌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병을 말한다. 치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치아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잇몸과 이빨(치근) 그리고 치아를 받쳐주는 뼈(치조골) 등의 치주조직이 분해해간다.

치주 질환은 잇몸의 염증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면 잇몸에 손상을 주고 최종 치환되던 말초에 있는 뼈까지 손상을 일으키고 뼈를 녹이게 된다. 뼈가 손상을 받으면 치아를 받치는 힘이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리기까지 빠지게 된다. 이 치환 치아를 잃게 되는 무서운 치주질환은 충치와 더불어 2대 치과 질환 중의 하나로 연평균 증가율이 따라 병행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에 풍치라고 불리던 병이 바로 치주질환으로 초기에는 빨리 증상이 없으나 증상이 심해져 나타나지는 경우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 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중증의 발병률은 전체를 전후해서 급격히 감소하지만 치주질환의 발병률은 30세 이후부터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40~50대에 이르르면 성인의 60~70%가 이 질환에 걸린다. 치아를 잃게 되

는 원인도 이와 같은 비율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 치주질환의 원인?

구강내에는 수십억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균들이 염여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플라그라고한다. 플라그 속의 세균은 주로 음식물의 당분을 이용하여 살아간다. 플라그는 모든 치아 표면에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치출질에 의해서 제거되지만 치아와 치아사이나 치아와 잇몸 사이가 생긴 틈과 그 치출질에 의해서도 제거가 이루어지고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위에 남아있는 플라그 내세 세균들이 증식하여 독성물질을 내게 되어 점차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이 치조골로 침범되면서 치주질환은 일으키게 된다.

플라그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딱딱한 석회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계속히 잇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괴된 치주 조직은 더욱더 플라그의 생성과 침범을 도와주게 되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남태준 중임장
 남태준 중임장
 TEL (714) 871-4902



생활건강

소화효소에 대하여

미네랄은 다른 비타민보다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효소나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지 않을 분들을 효소와 함께 섭취하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이면서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황기, 쑥, 감마, 꿀다, 꿀꿀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아레나, 나비카도,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파파야, 키위 등은 효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생활에서 생긴 고기를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갈아서 두세 시간 고기에 들어있던 안에 녹을 정도로 부드러워지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효소의 단백질 분해 작용 때문입니다.

소화효소는 아미라제, 프로타제, 리파제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효과적인 효소로 작용합니다. 짐에는 아미라제라는 효소가 풍부해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며 보리 식이섬유는 특이 섬유는 이것을 먹으면 산인물이 됩니다.

▶ 1387호에 계속됩니다.

◆ 비타민 전문점
 문의: (714) 534-4938
 Nutritionist Jack Son
 ▶ 주소: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가정의학

당뇨병의 치료(21-2)

당뇨병에서 인슐린 실제 사용법

인슐린 사용방법들 중 하루 1회 주사요법이나 2회 혼합 요법요법은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하지만, 적지 않은 환자에서 아침이나 점심 이후의 혈당 상승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반대로 필요량보다 많이 투여할 경우 밤에 잠자는 동안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혈당은 하루에 4-6번 혈당을 측정하면 발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혈당 조절이 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하루에 4번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대체 인슐린요법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주세입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속효성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고 취침 전에 중간작용(Intermediate-acting, 예로 NPH) 혹은 지속작용(Long-acting, 예로 lente 혹은 glargine)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고 있으며, 혈당 조절 효과는 다음에 설명드릴 인슐린 펌프치료와 거의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혈당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공복혈당이 250~300mg/dl 이상으로 높아 포도당 독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환자는 혈당변화에 관련된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 두 가지 경우엔 감내제를 최대 용량 사용해도 3개월 이내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인슐린을 추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슐린과 경우약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 조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슐린 투여량이 감소하여 체중 증가나 저혈당 같은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약을 사용하는지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과 thiazolidinedione을 병행한 경우 저혈당, 부종, 빈혈, 골염성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국 가정의학과비교과
 영남대학교 의학부
 TEL (849) 552-8217



효소가 부족하면 신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만성피로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못때는 건강 관리가 철저할 때면 예 60주 개의 세포는 노력이 모아져 되면서 약한 신체 부위부터 일어나 손